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윤회와 열반의 뿌리는

그대 마음 안에 있으니

마음은 어떠한 형태나 내용이 없노라.

윤회계의 쳄바퀴 속으로 들어가서 방향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참된 본성이 가려져 있기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그러나 생각은 그러한 본성이 어떤 모습을 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고착화를 통해 순수자작은 나와 남, 좋고 싫음 등의 고정관념에 의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윤회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안다는 것은 부처의 경지를 깨닫는 것이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무명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건 당신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도하고 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결정돼 있는 어떤 실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진흙처럼 어떤 모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공성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제 전부입니다.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비어 있는 본성을 깨닫기 위해 정진하십시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진각공감’ 내걸고 불교 대사회화에 주력”

진각종 제 29대 회장 통리원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우리 한국불교는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국난극복의 서원과 실천으로 나라와 민생을 구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공감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각 밀교를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수행문화로 전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대중들과 함께 ‘진각공감’의 이름으로 불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29대 진각종 통리원장 회장 정사(사진)는 5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렇게 피력했다.

회장 통리원장은 이어 “밝은 신행, 즐거운 신행, 신바람 나는 신행문화를 만들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각종이 되도록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신행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통리원 부실장급 간부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장 통리원장은 “신행문화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각 심인당과 진각문화전승관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위

해 지역 특색에 맞는 심인당 문화를 연구·개발하고 진각의 문화를 기반으로 수행문화가 갖춰지도록 유도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이라고 계획을 털어놨다.

취임사서 밝힌 진각종이 ‘사회적 공감’을 표방한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회장 통리원장은 “중단은 교육과 복지의 두 수레

신명나는 신행프로 늘리고

전승관 일부 지역민에 개방

경주에 50만명 체험공간 조성

를 중심으로 교화, 포교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활동을 문화로 결집해 공감하는 불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진각공감의 참뜻이라며 “문화란 나누어 키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도 이제 나누어 키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진각문화전승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지를 밝혔다. 회장 통리원장은 “지하 1층 공연장, 1층 전통밀교문화전시관, 2층 도서관과 각국 밀교자료실, 3~4층 종무기반 사무실, 5층 템플스테이, 6층 수행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외적으로는 공연, 전시,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1층과 2층의 경우 세계의 밀교를 직접 체험하는 공간과 다문화시대의 새 문화공간으로 구성하겠다. 또한 시설도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장 통리원장은 “올 하반기 착공해 내년 완공 예정인 국제체험관과 교육관은 종단의 중심지인 종인원 구역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다. 국제체험관은 가족단위 수행을 위한 공간이자 내, 외국인 이 체류하면서 진각 밀교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며, 교육관은 가족단위 공간이 50여 개인 공간으로 가족의 체험문화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각성종 회장대중사 탄생지인 울릉도서 매년 열리는 회당문화축제에 대한 변화도 언급했다. “올해로 11회 째를 맞으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울릉군문화재단에 승격하는 계획을 마련해 울릉군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도로재 정비 계획 등 금강원 성역화 불사에도 만전을 기해 진각종 종조탄생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실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장 통리원장은 “밀교 수행법을 일반인들에게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신라시대 화랑도 훈련장소였던 경주 단석산 자락에 50만평 규모의 시설 조성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부석사 불상, 환지본처가 해답”

부석사 불상 봉안위,

30일 정책토론회 열어

일본 시민단체의 반환 요구 등 부석사 불상의 환수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가 격화되는 가운데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공동대표 주경 등, 이하 봉안위)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봉안위 집행위원장 원우 스님, 김경임 중원대 교수(前 튀니지 대사), 이명수 국회의원, 김문길 한일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역사적, 논리적 근거에 입각한 주제발표로 환수운동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봉안위 공동대표 주경 스님(부석사 주지)은 인사말에서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를 드러내고 종교적으로도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700년 전 조상들이 서산부석사에서 금동관세음보살상을 주조하고 극락전에 모셨다는 사실이 복장기에 기록돼 있다. 후손된 도리로 그 발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살좌상은 본래의 자리인 서산부석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임 중원대 교수는 ‘국제법·최근



서산 부석사 불상 제자리 봉안위 공동대표 주경 스님(부석사 주지)이 세미나에 앞서 불상의 환지본처를 발언하고 있다.

국제동향·유사사례’에서 “좌상을 절도해 반입한 행위는 유네스코 협약에 위반되나, 수백 년 전 약탈된 우리의 문화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반환은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며 “이 불상이 약탈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고, 약탈된 문화재임을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불상의 반환에 앞서 일본정부에 대해 출처를 정식 요구할 수 있다.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길 한일문화재연구소장은 ‘일본 자료를 통해 본 불상의 약탈 가능성 조망’에서 예구의 약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교류품이라면 복장의 교류 품이 바뀌거나 없을 것”이라며 “부석사에

서 봉안했다면 복장이 불상체내에 들어 있는 것도 객관적으로 약탈품이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우 스님은 서산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의 제자리봉안활동과 전개방향에서 “서산 부석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부석사의 불상과 관련한 구전을 모으고 있으며, 향후 구전모음집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향후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국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화재 환수국회포럼을 결성할 것을 제안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 구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림 사격 갖추고 나눔 활동 앞장”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 재임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주지에 우송 스님이 재임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견실에서 우송 스님에게 주지 임명장을 수여했다. 우송 스님은 5월 2일 신흥사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우송 스님은 이날 △수행도량 △복지도량 △기림수호를 3대지표로 신흥사와 조계종 3교구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총림 사격을 갖춘 도량으로 일구겠다”며 “6월 중회를 기점으로 총림 지정을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식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흥사는 어느 분사보다 지역 복지에 앞장 서고 있다”며 “4년간 경험을 토대로 계속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우송 스님은 임명식 이후 아름다운 동행에 5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명식에서는 직할사찰인 약수사 주지에 우화 스님이 임명됐다.

노덕현 기자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위령제



승단의 화합과 더불어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의 걸림과 편벽됨이 없이 가득하고 만족하며 완전한 일체가 되어 서로 융화하며 장애가 되지 않는 원융무애 사상을 근본으로 한국 불교의 발전 위한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에서는 2013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서 제2회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를 봉행합니다.

일시 | 불기 2557(2013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제1부 - 순국선열 헌충문 참배

제2부 - 현충관 위령제

제3부 - 영산제

- ☑ 법주(총재) : 영산당 일공 대화상 부 총재 : 고명 대중사, 법혜 대중사
- ☑ 대 회 장 : 석연화 부대회장 : 은곡, 효진, 도선, 원덕, 월암
- ☑ 봉행 위원장 : 법봉 봉행 부위원장 : 법성, 청운
- ☑ 집행 위원장 : 성관
- ☑ 준비 위원장 : 해월,
- ☑ 의 전 : 무영, 지성, 흥법, 혜성.
- ☑ 제 전 위 원 : 해일, 휴암, 룬보, 경민, 경진, 자연스님외 다수
- ☑ 진흥회 회원 : 돈오, 금봉, 승현, 오연, 체의, 도현, 해광, 정안, 담원, 경천, 법현, 법혜, 자운, 해문, 지우 등
- ☑ 후 원 : 국방부, 국립 현충원, 나라사랑 국민연합, 불교TV BTN, BBS, 현대불교, 월남 참전 전우회, 전국외용 소방 연합회, 자유수도 참전동지회, 지구환경 운동본부, 독도수호 국민연합, 세계 예술교류 협회, 한국 민속예술 연구원, 월간 禪으로 가는 길.

* 나라를 위하는 숭고한 동행인이 되어 주시길 바라오며 함께하실 법하를 초청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 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